

위축된 지역 문학 부흥 나선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인문학 포럼 개설 28일부터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시인·작가·시인들이 지역 문학의 부흥과 내공 다지기를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고재중)는 광주오월문화관과 공동으로 '인문학포럼'을 개설하고 28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일곡동 남도음식박물관서 진행한다.

총 16강좌로 구성된 포럼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바람에 대응할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출 요구와 최근 문학의 중심축에서 멀어진 이 지역 문학의 부흥을 다지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28일 시인 고진하씨의 '우파니사드와 기독교철학' 강좌로 시작하는 이번 포럼에는 내로라하는 철학자 7명과 문인 9명이 강사로 나선다. '나비와 전사의 저자 고미숙씨를 비롯 '나체의 위험한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저자 고병권씨, 칸트 철학에 밝은 김상봉 교수(전남대)가 강의를 맡았다.

또 김동규씨가 '하이데거의 사이-예술철학'을, 위상복, 박준상



<나희덕> <이기호> <고미숙>

교수(전남대)는 '헤겔과 1940년대 경향기 문학비평에 있어 역사 철학의 역할' 등을 강의하고 최성열 교수(조선대)는 '문화와 불교'라는 주제로 참여한다.

분단에서는 소설가 이화경, 문학평론가 김형중, 시인 이장욱 나희덕·소설가 이승우(이상 조선대 교수), 소설가 이기호·문학평론가 신덕문(이상 광주대 교수), 문학평론가 유희석(전남대 교수), 시인 권혁용(한양대 교수)씨가 강의를 맡는다.

문의 062-523-783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고인의 삶 책으로도...

盧 전대통령 관련 서적판매 급증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책으로 고인의 삶을 기리고자하는 독자가 늘면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서적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쓰거나 지지자 또는 비관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삶과 리더십을 다룬 책들의 판매량이 서거 소식이 전해진 이후 크게 늘었다.

노 전 대통령이 펴낸 에세이 '여보, 나 좀 도와줘'(새터 펴냄)는 4월 한 달을 통틀어 총 4권이 팔렸으나 23일부터 25일 현재까지 550여 권이 팔려나갔다.

2002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리학자 정혜진씨, 아들 건호씨 등이 '인간 노무현' '정자인 노무현' '노무현 읽기' 3부로 나눠 노 전 대통령을 분석한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행복한책읽기 펴냄)은 지난 4월 한 달간 한 권도 팔리지 않다가 23~25일 사흘간 152권이 판매됐다.

그 밖의 인터넷서점 사이트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문이 늘어 출판사의 재고가 거의 동난 상태다.

또 오프라인 서점에는 전복대 감준만 교수가 펴낸 '노무현 죽이기'(인물과사상사 펴냄)와 유전 장관의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개마고원 펴냄) 등도 구입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책은 나와있는 것만 해도 총 80여 종.

해양수산부장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행복한책읽기 펴냄)와 '노무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펴낸 '그에게서는 사람의 향기가 난다'(열음사 펴냄) 등 다양하다.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자전 에세이집 '여보, 나 좀 도와줘'는 고졸 출신의 인권 변호사, 5공 청문회 스타, 그리고 선거에 낙선하고도 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정열의 사내 노무현'이 고해성사를 하듯 털어놓는 자신의 인생살이 이야기이다.

1994년에 초판이 발행됐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을 때 재출간된 책이다.

2007년 출간된 '그에게서는 사람의 향기가 난다'는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www.knowhow.or.kr)에 올라온 국민들의 글을 엮은 것으로 어린 학생들로부터 직장인, 나이 많은 어른까지 광범위한 보편사람들이 대통령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 정치의 희망을 찾으려는 간절한 소망들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이창우 화백의 정치풍자 만평 '만화로 보는 노무현 시대'(산지니 펴냄)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진씨가 쓴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노무현 왜 그러는 걸까'(개마고원 펴냄) 등도 주목받고 있는 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09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 상품화

지역 중기 인스나인과 계약 한글 풀로 생활도자기 제작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5일) 출품작을 지역 업체에서 상품화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5일 "한재준 서울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의 한글 작품을 인스나인(홍인욱 대표)이 상품화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문화체육관광부 청사건물에 '춤추는 한글' 작품을 설치한 한글 디자인 전문가이다. 그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여섯 가지 형태의 글자꼴로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등 그 어떤 한글 문구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신개념 작품을 선보인다. 'ㅇ' 'ㅣ' 'ㄱ' 등의 자음과 모음을 퍼즐식으로 조합해 단어를 만드는 이색 디자인이다.

(주)인스나인은 한 교수의 작품을 바탕으로 다양한 한글 문

구를 표현할 수 있는 생활 도자기를 만들 계획이다.

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이 상품화된 것은 지난 2회 대회 때 광주의 조형기기 생산업체인 대방포스텍이 앙드레 김 문양을 조형제품에 새겨넣은 'ANDRE-KIM LIGHT'가 유일하다.

한편 광주시 북구 청풍동과 화순 동면에 디자인연구소와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인스나인은 박태후 화백의 참새 연작을 주제로 한 '참새 반상기 세트' 등 다양한 남도문화상품을 제작하고 있다.

지난 2007 대한민국우수산업디자인에서 굿디자인(Good Design)을 획득했고,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층 갤러리 카페 'BIN'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뒤상과 위홀이 재판을 받는다면...

서기문전 전남대도서관서

미술품을 상품화한 죄목으로 위홀과 뒤상이 체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극사실주의 작품을 추구하고 있는 서기문씨가 오는 6월5일까지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이들의 가상 체포와 재판 모습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회화미술독서'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흥미로운 가상세계를 펼쳐놓았다.

'뒤상의 재판'에는 램브란트, 피카소, 레빈 등이 방청석에 앉아있고, '위홀의 체포'에는 아도르노, 하버마스과 보드리야르, 단토 등을 검사와 변호인 등으로 표현하는 유머를 보여준다.



'뒤상의 재판'

그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한국 수채화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위홀과 뒤상은 1994년 11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뒤상'이라는 작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뒤상'이라는 제목으로, '뒤상'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한 '참새 반상기 세트' 등 다양한 남도문화상품을 제작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현대무용단 정기공연

'합창과 현대무용의 만남' 광주현대무용단(회장 조소희) 19번째 정기 공연이 27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섬지현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선보일 'Attention 2'이다.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몸짓의 합창과 현대무용을 접목시킨 이번 작품은 섬씨가 안무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 특별함도 새로움도 없는 조용한 거리에 나타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역동적인 춤사위로 묘사했다.

조선훈 무용과 대학원을 졸업한 섬씨는 미국 브로드웨이 댄스 센터에서 연수했으며 현재 Black j 댄스아카데미 대표를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섬지현>

지역		소매지	매입가	판매가	최종가
광주	광주	11294	1913	891	181
	광주	11294	1913	891	181
	광주	11294	1913	891	181
	광주	11294	1913	891	181
	광주	11294	1913	891	181
	광주	11294	1913	891	181
	광주	11294	1913	891	181
	광주	11294	1913	891	181
	광주	11294	1913	891	181
	광주	11294	1913	891	181
전남	전남	11294	1913	891	181
	전남	11294	1913	891	181
	전남	11294	1913	891	181
	전남	11294	1913	891	181
	전남	11294	1913	891	181
	전남	11294	1913	891	181
	전남	11294	1913	891	181
	전남	11294	1913	891	181
	전남	11294	1913	891	181
	전남	11294	1913	891	181
전북	전북	11294	1913	891	181
	전북	11294	1913	891	181
	전북	11294	1913	891	181
	전북	11294	1913	891	181
	전북	11294	1913	891	181
	전북	11294	1913	891	181
	전북	11294	1913	891	181
	전북	11294	1913	891	181
	전북	11294	1913	891	181
	전북	11294	1913	891	181
전라	전라	11294	1913	891	181
	전라	11294	1913	891	181
	전라	11294	1913	891	181
	전라	11294	1913	891	181
	전라	11294	1913	891	181
	전라	11294	1913	891	181
	전라	11294	1913	891	181
	전라	11294	1913	891	181
	전라	11294	1913	891	181
	전라	11294	1913	891	181